

“내딛는 한걸음마다에 생명 소중함 새깁니다”

남산 걸으며 생명존중 · 환경보호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3회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참가자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⑨ 걷기명상 축제 현장

생명나눔, 9월 3일 동국대서
걷기명상 축제…1000명 동참
환경보호 확산 위한 ‘플로깅’
각종 공연 · 체험 부스도 운영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1000명의 발길이 가을을 머금은 남산 일대를 가득 채웠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3회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3살 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실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가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특히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축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명신 스님과 혜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일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가수 김흥국 등 사회 인사도 대거 참여해 걸음을 보탰다.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 걷기대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발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남산 숲길에서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생명나눔 걷기명상이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 발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은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소개하며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남산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고 생명존중과 나눔의 소중한 가치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걷기대회는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징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부와 손잡고 걷는 노부부, 친구와 연인 등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남산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산책로 중간중간 만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청정자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직접 줍고 재활용을 분리해 가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의 징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한 ‘플로깅’ 활동으로 진행됐다. 쓰레기를 줍는 일면 스님 모습.


정현숙 후원회장이 이끄는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도 함께 열렸다.

7세 아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에서 아침 일찍 집을 출발했다는 김영석(42)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아이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발 한발 느린 걸음으로 청정자연을 만끽함과 동시에, 쓰레기 줍기를 통해 부모로서 아이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김진아(57) 씨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남산 주변을 돌며 자연 관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마을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도 살피고 싶어 대회에 참여했다”면서 “생명나눔은 물론 우리 환경도 지킨다는 생각에 뿌듯한 주말”이라고 말했다.

걷기대회를 회향한 후 참석자들은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축하공연과 함께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회향 전에는 추첨을 통해 로봇청소기, 자전거, 전기밥솥 등 푸짐한 경품 증정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명상 축제와 함께 만해광장에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꽃 압화 체험, 보석십자수 만들기, 격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생명존중 부스가 마련돼 참가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생명존중 OX퀴즈 부스 앞은 문제를 풀면서 생명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으려는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성한 바람과 함께한 걷기대회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함께하는

제14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오늘,
희망의 내일

2022년 09월 24일 (토), 오후 4시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본행사 일면장학금 전달식 | 환자치료비 전달식 | 공헌자 표창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식 | 인사말 및 축사

문화공연 사회자 |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 마하무용단, 최정철, 배아현, 신성, 김소유, 양지원, 은가은

부대행사 장기기증 캠페인 | 불암사 국화축제 |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출연진

마하무용단

최정철

배아현

신성

김소유

양지원

은가은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후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LabGenomics BS HLA Laboratory 삼광의료재단 BBS불교방송 동국대학교일산병원 BTN불교TV 현대불교 불교신문 법보신문